

# 광주시 브랜드 상설공연장 사업 재추진

### 시의회 심의 과정서 예산 전액 삭감 사업 중단 세계광엑스포 리모델링 정부 교부금 10억 확보

광주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던 브랜드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 재추진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브랜드 상설공연장으로 사용할 세계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1차 추경에 브랜드 상설공연장 예산 5억78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광주시는 서구 상무시민공원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브랜드 상설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브랜드 상설공연장을 만들고, 이를 무대에 올릴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상 3층에 연면적 1669㎡ 규모인 시설에 225석 규모의 영상관을 설치한다. 또 영화상영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영상관의 무대조명, 음향설비, 무대장치 등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공연을 유치하거나 산발적으로 무대에 올랐던 인기공연을 오피스나 갈라쇼 형태로 선보이는 방안 등 공연 콘텐츠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오페라단을 비롯해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발레단, 극단, 국극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이 각자의 특징을 살려 협업(콜라보) 공연 또는 순번제 공연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연 콘텐츠를 확정하고 나면 공연 규모나 출연 인원 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프랑스에 가면 ‘물랭루즈’를 보는 것처럼 광주에서도 즐길 수 있는 브랜드 공연이 필요하다”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

물을 활용하고 광주지역 공연을 토대로 대표 공연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자스민 광주’를 비롯해 일부 작품이 상설공연에 들어갔으나 단기간에 유아무야했다. 당시 광주시는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광주 대표공연인 ‘자스민 광주’를 선보였다.

진도 씨짓국을 중심으로 시나위, 타악, 무용, 디지털 영상, 퍼포먼스를 가미한 이 공연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지역 각국 민주화 희생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하지만 작품성이 미흡하다는 혹평 속에 결국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영농형 태양광 보급’ 농가소득 늘린다

### 도-한국남동발전 협약

전남도와 한국남동발전(주)은 27일 전남도청에서 태양광발전과 농업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2019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지원해 전남지역 25개 마을에 영농형 태양광 100kW씩 총 2.5MW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 마을 조합에 기부하게 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25개 마을협동조합은 20년간 120억 원의 발전 수익이 발생,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농가 소득 증대, 귀농인 인구 유입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약식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지역은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특히 산간·벽지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김삼호 광산구청장, 실용행정 통해 교부세 25억 확보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탄력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삼호 구청장은 지난 20일 행안부로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정비사업 14억원을 비롯해 광산안전대진단 관련 사업으로 총 4건에 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다. 김 구청장은 당선자 신분일때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글로벌 마케팅과 광산안전대진단 등을 역점 과제로 내세우며 관련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김 구청장이 당선자 신분인 지난 6월 22일 행안부를 직접 방문, 광산안전대진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자체의 의지를 적극 전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 5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노력

도’ 등을 추가로 확인·평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광산구정책의 중심이 ‘공동체’였다면 민선7기의 중심은 ‘공동체 속 개인의 행복’이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수시로 중앙정부 방문에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점검·해소하는 광산안전대진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던 도시환경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적극 나섬으로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오리농가 피해 대책 강구하라”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한국오리협회 소속회원들이 시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 농가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전남도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46억 투입

### 지방비 우선 투입 사업 구체화 국가 전략사업 반영 주력

전남도가 대선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다. 정부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쟁쟁한 기인 셈이다.

전남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천연물 및 의약품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사업으로 ▲천연물 우수농산물 품질관리(GAP)·우수 의약품 품질관리(GMP) 처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역량 강화사업 3억원(총사업비 30억원) ▲정색

경제포럼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5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는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백신 글로벌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40억3800만원 ▲화순국제백신포럼 국제백신학회 개최 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40억88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전남도는 대선공약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이미 발주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선제적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국가전략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대선 공약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대형 국비사업과 연계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자켓과 같은 신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안경주

###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신삼식

전남도는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에 안경주(여·52) 전 경북대 초빙교수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에 신삼식(61) 전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경주 원장 내정자는 다음달 이사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보성출신인 안 내정자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리큐스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리큐스대학교와 로체스터공과대학교에서 러스대·충남대 등에서 문화인류학, 여성학, 문화 융복합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다. 경북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



(CORE)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신삼식 센터장 내정자는 농업 전문가다. 1978년 완도군 농촌지도사를 시작으로 39년 간 해남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전남농업기술원 재직 시 산업재산권 취득, 지역농산물 가공 시범사업 추진 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신 내정자는 순천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농학과와 순천대 원예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